

그림비

No.20

(2000년 12월호)

편집 : 문헌정보 학술편집부
편집인 : 학술부장 정미숙
발행 : 문헌정보 학생회
발행일 : 2000년 12월 8일

문헌정보학과 소식지

내용 글 미리보기



- 20주년 기념 행사
- 그림비발간을 축하하며
- 학술관
- 문헌정보소식
- 쉬어가는 글.....
- 우리 교수님
- JSA를 보고...
- 졸업 동문의 글
- 동문회 소식
- 도서관 설문 조사
- 연락하고 삽시다!!!

●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를 마치고

21 Century

문헌정보
Lib&Info

우리와 창립 20주년 행사는 2000년 11월 17일에 학교 소강당에서 열렸다. 기념식은 오후 세시부터 3부로 나누어 치러졌는데 학교 내외 인사, 교수님, 동문선배, 재학생들로 소당당은 세시 전부터 분주했다.

1부의 시작은 국민의례를 하고 강 순애 교수님의 우리과의 연혁을 소개하셨다. 다음으로 지금 강의하고 계시는 교수님중 가장 연륜이 있는 이 용남 교수님께서 기념사를 해주셨다. 다음으로 총장님이 축사를 해 주시기로 되어있었는데 사정상 교무처장님께서 대신해 주셨다. 또, 동문 대표가 이 용남 교수님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것으로 1부는 끝이 났다.

2부는 기념특강 시간으로 유 경환(전 조선일보·문화일보 논설위원)님께서 미래도서관 기능의 변화에 대해서, 이 두영(한국도서관협회장·중앙대 교수)님이 개혁정책에 따른 도서관의 당면 과제에 대해 연설해 주셨다.

3부는 문정인의 밤 행사로 발랄한 새내기들의 춤과 노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고 식사와 먹거리들이 허기진 배를 어루만져주는 시간이 계속 되었다.

이렇게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창립 20주년 기념행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동문선배들이 많이 오셔서 재학생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행사때보다 많은 동문선배들이 오셨고 후배들과 같이 도서관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창립 20주년 기념 논문집도 아주 두껍게 간행했는데 양질의 논문들로 가득 채워 다른 학교의 기념행사와는 구별되었다.

이렇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는 성공리에 치러졌고 앞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문정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도서관 문제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96 이선형

● 그림비 발간을 축하하며

학생 회장의 글

18대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
96학번 김성준

안녕하십니까

18대 학생회 학생회장 김 성준입니다. 저희 18대 학생회 집행부 및 간부들을 대표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18대 학생회가 17대 학생회를 거쳐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새로운 기대와 격려를 기반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느덧 늦가을도 지나고 성큼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2000년도 불과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1세기 새 천년의 해를 맞이하며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던 첫마음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이제 올해를 마무리지며 내년을 기약해야 합니다. 쌀쌀한 겨울 날씨와 더불어 우리의 마음도 공허함을 느끼는 시기라고 봅니다. 곧 기말고사를 끝으로 올해의 1년도 모든 학기도 마무리 되어 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새 천년의 부푼 가슴과 각오로 맞이한 새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1년의 수확을 거두셨습니까? 혹시 작심삼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한달 남짓 남은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남은 한달 남짓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의 각각의 유종의 미를 거둔다면 결코 후회스럽지 않겠지요. 밝아오는 2001년 새해 더욱이 얼마 전 20주년의 뜻깊은 행사를 통해 여러분의 무한한 자긍심과 새로운 발전 그리고 희망을 기대해봅니다.

20년이라는 숫자의 의미 우리와 같은 20대 무한한 가능성과 젊음 그리고 새로운 도전.... 우리는 늘 자신의 모습에 안주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 늘 자신을 개척하고 발전시키며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문정인들로서 새롭게 깨어났으면 합니다.

●하나, 늘 자신을 남에게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과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이나 자랑거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 그리고 대학생활에서 떠나는 그날까지의 순간순간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보십시오. 결코 후회스럽지 않을 대학생활의 4년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남을 포용하고 배려할 수 있는 관용의 자세를 가지세요.

남은 한 달의 시간을 잘 마무리 지으며 내년의 새로운 각오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18대 학생회는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를 기반으로 열심히 그리고 문정과의 일꾼으로서 늘 봉사하는 마음의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2000년을 되돌아보며.....

17대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
98학번 정 재연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새 천년도 봄, 여름 가을이 지나 어느덧 겨울이 되었고 이제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때가 왔습니다.

또 한 권의 그림비가 나옴으로 인하여 한 학기를 마무리할 때가 왔다는 것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군요. 그림비의 20번째 발간을 축하드리며 우리 과의 학술, 소식지로서 앞으로도 많은 발전하길 바랍니다.

우리 문헌정보학과 모든 분들은 올 한해를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군요.

처음에 가졌던 첫 마음들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와 되돌아보면 부족했던 점과 잘못했던 것들만 떠올라 부끄럽지만, 2000년 한해가 저에게는 참 뜻깊었습니다.

선거를 준비하던 시기부터 하나하나 떠오르지만 그 중에서도 학생회 사업 중에는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새내기 새로 배움터가 기억납니다.

지식정보학부라는 이름아래 귀여운 새내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터를 준비하면서 소속감을 갖기 힘들었던 인문계열 99학번이 문헌정보학과와 새로운 구성원으로 태어났고 또한 새로운 선배가 되었습니다.

활기차게 새내기를 맞으며 지내던 3월의 끝 즈음에 우리 문헌정보학과와 연합M.T가 있었습니다. 1학년 후배부터 4학년 선배님 그리고 교수님들까지 캠퍼스가 아닌 교외에서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대동제에서는 3일간 주점을 열어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고 새내기 장기자랑을 비롯하여 종합 2위라는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2학기 낙산 문화제전에서는 많은 문정인, 지정인들이 참여하여 우리 과의 사기를 드높이고 불꽃제전에서는 축구 우승이라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문헌정보학과 20주년 행사와 문정인의 밤은 재학생을 비롯하여 동문 선배님들 교수님들까지 문헌정보, 지식정보라는 이름아래 하나가 되는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년을 되돌아보며 굼적굼적했던 사업들을 떠올리며 느끼는 것은 결코 제 자신의 자랑스러움이 아닙니다.

문정인, 지정인 한사람 한사람의 과 사랑이 모여 이룬 결과입니다.

당찬 결의로 시작했던 학생회장 자리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우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학생회비가 부족하다고 실망하며 지칠 때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고 함께 가고자 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당선된 18대 학생회장단과 더불어 내년에도 그 다음해에도 우리 과의 발전이 계속될 것이라는 희망 또한 여기서 기인한 것입니다.

끝으로 정말 많이 부족했던 17대 학생회를 지켜봐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문정인, 지정인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95 문주원

● 학술란 (학과 관련 소식)

◇ 학술정보 상호협력 체결 ◇

국회도서관은 대학 및 기관과의 학술정보 상호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여 해당 도서관에 원문DB를 전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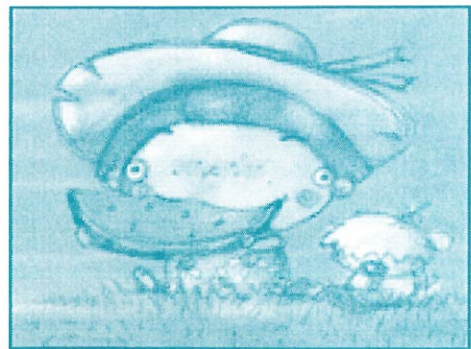
국회도서관이 구축한 자료는 300만여 건의 서지데이터와 1,600만여 쪽에 이르는 원문(full-text). 정보이며, 원문정보에는 1970년대 이후 수여된 사회과학분야 학위논문 12만 건, 1,100여종의 학술지 등이다. 또한 국회도서관은 올해 안으로 50여개 기관과 협정을 맺어 국회도서관 원문DB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저작물이용허락을 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는 연세대학교, 단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숭실대학교, 경희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 34개 대학이 체결되어 있다.

<출처 : 국회도서관>

◇ 문화관광부 제공 도서관 소식 ◇

금년 11월 13일 그 동안 개발해 온 고서용 KORMARC 형식이 KS 승인번호KSX 6000-6으로 제정됨에 따라 이를 기술규칙과 함께 국내 공공도서관 및 고서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제정된 고서용 KORMARC 형식은 1992년 한국정보관리학회에 의해 수행된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국립중앙도서관이 「KORMARC 형식 및 기술규칙(안) - 고서용」을 만들고, 이 안을 도서관계 및 관련 단체에 배포하여 의견 청취 및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것이다. 고서는 지적 문화유산으로서 희소성을 가지고 있고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다른 자료에 비하여 목록의 표준화와 전산화가 미진한 편이었다. 따라서 고서에 대한 보존은 물론 표준적인 서지DB를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자료의 활용도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고서의 서지적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MARC 형식과 기술규칙을 만들게 되었다. 고서용 KORMARC 형식과 기술규칙은 기존의 MARC 체계를 유지하면서 고서의 특성을 충분히 살린 관계로 앞으로 고서DB구축 및 정보 공유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고서용 KORMARC 형식과 기술규칙은 12월 중 책자로 발간하여 해당 도서관, 관련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96 임주열

● 학과 소식

2000년 한해 동안 문정과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월에 2000 학번 새내기들의 입학식을 시작으로 2000년도 학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3월 초에는 대성리로 연합MT를 가서 많은 학우들의 하나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3,4월 학기초에는 99학번 봉 재운 학우가 짱으로 소풍 소모임인 「소풍」, 작년부터 있어 왔던 99학번 권 혜진 학우를 짱으로 영화 소모임인 「M&L」, 99학번 김 응동 학우를 짱으로 시사토론회 「시토」 등 여러 소모임들이 생겨났습니다.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존재하지 못했던 소모임이 많았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하나 둘씩 행사들이 시작되었구요, 저희 문정과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대동제 때는 3일간 진행된 학과 주점에 교수님들께서 오셔서 매상을 많이 올려주셨답니다. 학과 행사라던지 2학기가 되어서는 2학년이 학년 MT를 다녀오기도 했구요, 4학년 졸업여행과 사은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issue는 물론 문헌정보학과 창립 20주년 행사와 문정인의 밤이었지요!

이번 창립 20주년 행사에는 여러 학부생들과 동문들, 그리고 각 학교 문헌정보학 교수님들도 참여하셨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20주년 기념논문집도 발간이 되었구요, 무엇보다도 동문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선후배간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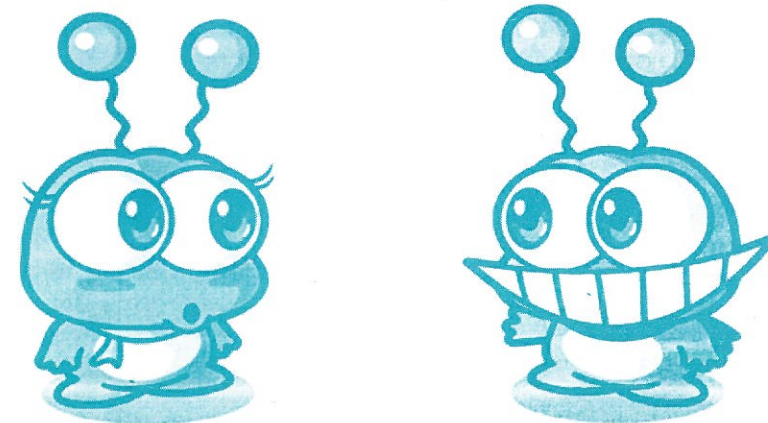
이번 행사에서는 앞으로 공공도서관이 나가야 할 모습을 모색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 행사가 여러 측면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01년 문헌정보학과를 이끌 제 18대 학생회가 96학번 김 성준, 00학번 조용인, 심현미 학우로 선출이 되었답니다.

어느 새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2000년 한해 동안, 우리 문정인들이 문헌정보학과하는 한 울타리 안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다음 한해의 많은 일들 역시 즐겁게 뜻깊게 진행되는 행사, 많은 학우들의 참여가 있는 행사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99 정혜선

● 쉬어가는 글

◆ 3초의 여유 ◆

-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기'를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리자.
정말 누군가 급하게 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 출발신호가 떨어져 앞차가 서 있어도 크랙션을 누르지 말고 3초만 기다려 주자.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결단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3초만 서서 기다리자.
그 사람의 아내가 정말 아플지도 모른다.
 - 친구와 헤어질 때 그의 뒷 모습을 3초만 보고 있어주자.
혹시 그 친구가 가다가 뒤돌아 봤을 때 웃어 줄 수 있도록..
 - 길을 가다가, 아니면 뉴스에서 불행을 맞은 사람을 보면, 잠시 눈을 감고 3초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언젠가는 그들이 나를 위해 기꺼이 그리할 것이다.
 -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때라도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내가 화낼 일이 보잘것없진 않은가.
 -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다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때, 3초만 그 아이에게 미소 짓고 흔들어 주자.
그 아이가 크면, 분명 내 아이에게도 그리할 것이다.
 - 죄 짓고 감옥 가는 사람을 볼 때 욕하기 전 3초만 생각하자.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울상을 하고 있을 때 3초만 말없이 웃어주자.
그 아이는 잘못을 뉘우치며, 내 품으로 달려올지도 모른다.
 - 그녀가 화가 나서 소나기처럼 퍼부어도 3초만 미소짓고 들어주자.
그녀가 저녁엔 넉넉한 웃음으로 한잔 술을 부어줄지 모른다
- ▶ 3초라는 시간.....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나마 여유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 여유가 우리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97 우정희

● 우리 교수님

서지학 분야의 숨은 개척자-강순애 교수님



올해로 한성대에서만 7년째 몸담고 있는 강순애 교수님은 서지학 연구 분야에서 있어 숨은 개척자로 인정받는 학자입니다. 강순애 교수님은 이번 '언해두창집요' 발굴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 1995년 월인석보권 권 25 발굴로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월인석보 권25는 초참본으로는 처음 발굴된 것으로 전체24권으로 간행됐을 것이라는 월인석보에 대한 학술을 깨는 획기적인 일로 평가받았습니다.

강순애 교수님은 이름 석자로 단연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이름하여 '유명한 교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순애 교수님은 자신인 철저히 언론의 뒀안길에서 연구하기를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강순애 교수님에게는 메스컴을 겨냥한 연구가 아닌 학제적 차원에서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연구활동을 벌이겠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이 있습니다.

"우리 학문계의 흐름이 개화기 이후 서구적인 가치질서와 가솔 문명을 맹신해온 데 반해 세계의 유수한 석학들은 21세기에는 동양이 세계의 주역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서구권에서 쏟아져 나오는 동양학 연구의 성과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에서 잘 알 수 있지요. 따라서 한국학의 입문학적 위치에 있으면서도 연구방법에 있어 문헌정보학에 근접한 서지학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성을 띠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의 시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간을 연구에 쏟고 있는 강순애 교수님은 현재 가산불교문화원과 서지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등에서도 활발한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적인 친분이 아닌 연구업적으로 자연스럽게 인연이 닿은 이들 단체에서 역시 강순애 교수님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굴하는 서지학 분야에 없어서는 안될 진정한 학자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순애 교수님이 그 동안 안팎으로 쏟아낸 연구실적에 비해 강순애 교수님을 향한 스포트라이트는 너무나 미비했습니다.

강순애 교수님의 목표는 서지학 분야의 끊임없는 연구 작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밝히자면 "서지학을 포함한 한국학 분야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데 전력투구할 계획입니다. 현재 역사 분야의 일부 자료에 한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는데 이를 전 분야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지요, 좋은 콘텐츠로 만들어 제자들을 통해 사회에 환원시키는 일을 몹으로 알고 연구활동에 더욱 매진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활동이나 실적은 모두 이를 위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강의에 충실할 것,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기꺼이 서지학 연구에 몰두할 것'이라는 강순애 교수님의 고지식할 정도로 외길을 고집하는 연구 철학만 봐도 쉽게 짐작되는 일입니다

강순애 교수님은 요즘 동양 3국으로 학제적 연구 폭을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이를 위해 최근 일본을 방문한 바 있으며, 아마도 이번 하계방학은 강순애 교수님에게 있어 또 하나의 연구 업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황금 연구기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98 정미숙
한성소식 발취

● “영화 JSA, 영화일 뿐이다”

지난 추석연휴에 개봉했던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이 지금까지도 꾸준히 인기 물이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영화가 남북한의 관계를 기존의 다른 영화들과는 달리 인간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그려냈다는 점에서 호평을 하고 있다. 올해 있었던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찾기와 더불어서 이런 남북의 관계가 인간미가 느껴지게 그려진 영화도 상영되고 해서 우리 일반인들은 남북한간에 화해무드가 조성되었다고들 한다. 그러나 어느 탈북자가 쓴 글을 보니 이런 우리의 견해와는 좀 다른 것 같았다. 북한 사람의 입장에서 쓴 그의 글을 실어 보도록 하겠다.

얼마 전 친구와 함께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를 봤다. 490만명이라는 기록적인 관람객 수와 달리 나를 비롯한 탈북자들은 이 영화에서 별다른 감동을 받지 못했다. 사실 별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남쪽 사람들이 흥분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것은 아마 남한 사람들은 분단이라는 상황에 무감각해져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항상 긴장과 전쟁 공포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공동경비구역은 한반도의 허리를 자른 군사분계선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거기서는 남북한 군인이 매일 얼굴을 맞대고 있으니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들어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실제로 군인들이 담배 같은 것을 주고받는 것은 보통이었다는 것이 내 친구들의 이야기다. 그러나 공동경비구역의 북한 군인들은 다른 군사분계선 군인들과는 달리 일반사병들도 군관학교(남한의 육사에 해당) 출신들로 최정예 군인들이다. 이들은 일반 부대에 가면 대대장급이라고 한다. 영화 속 북한군 오경필 중사의 모습은 마치 내가 북에서 만나보았던 제대 말년의 능구렁이 북한 하사관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재밌었다. 어둡고 별만 반짝이는 조용한 밤에 외로이 잠복 근무를 서고 있노라면 남측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인민군 병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한다. 영화에서 보듯이 김광석의 노래를 좋아한다든가 하는 내용들은 실제로도 맞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런 감정과 실제 상황은 엄연히 구분된다. 군사분계선에서 근무하는 북한군은 민경부대라고 불리는 특수부대가 대부분으로 출신 성분이 가장 좋고 사상이 투철한 군인들이다. 그리고 북한군 안에는 정치지도원과 보위지도원이 있다. 이들의 임무는 병사들의 사상 상태나 행동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워낙 거미줄처럼 감시망이 쳐져 있기 때문에 영화와 같은 장면이 생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군사분계선 지역의 민경부대에서 복무한 한 탈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976년 도끼만행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남북한 군인들이 서로 왔다갔다하면서 담배는 물론 술까지도 마셨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철책선이 생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만약 북한군 병사가 당국의 허락 없이 남한 병사와 비밀리에 만나 그런 행동을 했다면 최소한 평생 정치범수용소에서 썩든가 공개처형될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화 속의 장면이 만들어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화 속의 장면이 실제로 있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북한군이 우리 동포임은 틀림이 없지만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이상화 교육을 받아 왔고 남쪽에 대한 뿌리깊은 증오심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잠깐의 만남을 통해 한순간에 풀릴 일은 결코 아니다. 영화의 비참한 최후가 바로 그것을 말해 준다. 이 영화로 인해 북한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남한 젊은이들이 북한에 대해 너무 감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현재 100만 북한군의 자동소총(AK소총)은 남쪽을 향해 있으며 10만 특수부대는 김정일의 명령 한마디에 따라 남한을 쑥대밭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영화가 이 같은 분단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을 흐리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96 오효선

참고자료 :주간조선(2000. 11.16)



● 졸업 동문의 글

“Eat your heart?”

91학번 김 일 환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그립비를 위해서 다시 모여준 학술부 후배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문헌정보학과 학술편집부에 많은 애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91학번이구요 지난달부터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술편집부 동문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글쎄요, 91년에 대학에 입학에서 실제 등록생으로 수업을 받은 건 여러분과 같은 4년이었지만 군대휴학, 어학연수를 위해 쉬었던 기간까지 8년 해수로는 9년 동안 학생신분으로 있었던 셈이지만 후배 여러분들에게 대학생살이란 어떤 것이라고 시원하게 정의해 드릴수도 어떤 대학생살이 이상적인 거라고 얘기해 드리기는 건 저로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수준의 얘기갈기는 하지만 저의 과거 대학생살에 대입시킬 수 있는 이야기라면 좀더 많은 후배여러분들께 와닿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도 가까운 후배들에게 자주 해주는 얘기 중 하나가 바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라는 말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마음만 먹으면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의지대로 직장도 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이성과의 교제에도 성공해 가정도 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음을 먹는다’는 의미는 글자 그대로 “Eat your heart” (약간 섬뜩하시죠)도 아니고 단순히 “I am in the mood to do something” (무엇을 하고싶은 기분이 들다) 의 뜻과도 거리가 있는 “Make a firm resolution” (굳게 결심한다) 의 뜻입니다. 속뜻은 그 길에 대한 확신과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평소에 이것저것 하고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을 뿐 그 마음을 먹지 않으면 자기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꼭 그 길을 조금하게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대학생 초기(1,2년)에는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을 해보세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도 만나보고 여행도 다니면서 이런 길 저런 길 한발씩만 들여 놓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의 경우 2학년을 마치고 군 입대를 하기 전까지 특별한 목표없이 이곳 저곳 기웃거리며 뭐든지 대충대충인(학술부활동은 제외)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군 제대 후 휴학기간 동안 우연치 않게 호텔에서 일을 하면서부터 서서히 제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심부의 특급호텔, 호텔 내에서도 외국인 손님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이태리 식당에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하루종일 한국기업인과 외국기업인사이에 수십 건의 계약이 성사되고, 허물없이 웃으면서 가벼운 이야기들이 오고가는 테이블, 이제 막 군복을 벗은 예비역 촌놈에게 그런 광경들은 정말이지 큰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후 7개월간의 보조웨이터 생활을 접고 영어학원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복학 전 5개월은 제가 하고싶은 일을 방해받지 않고 하고싶은 만큼 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였습니다. 군대휴학을 꼬박 3년 했지만 복학한지 1년만에 또 휴학, 영국영어연수,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이었지만 ‘마음을 먹으니까’ 정말 모든 것이 잘 풀리더군요. 지금은 저의 그리고 여러분의 모교가 될 한성대학교에서 국제협력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후배여러분! 자기의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여러분의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전공에 여러분의 미래를 묶어 두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공부하는 학문이 자신의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정쩡하게 한쪽 발만 들여놓고 계시다면 과감하게 빼셔도 좋습니다. 두발로 열심히 뛰어야만 겨우 제시기에 닿을 수 있는 길을 한발로는 힘들지 않을까요? 홈런왕 타이틀을 차지했던 한 프로야구 선수의 말이 생각납니다. “혼이 담긴 노력은 하늘도 배반하지 않는다” 정말 마음을 제대로 먹었을 때는 뜻하지 않는 기회도 찾아오고 운도 따르는 법입니다.

’96 노은미

● 동문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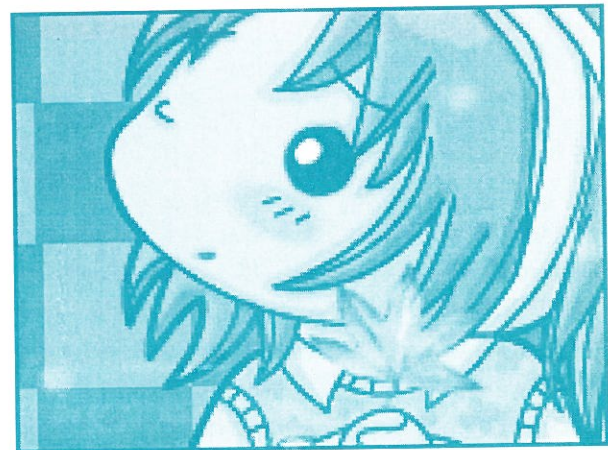
지난 11월 4일에는 학술편집부 동문 선배들께서 정기모임 및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동문 선배들 외에도 재학생들이 참여하여 학술부의 장래에 관한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12월 16일 학술편집부 동문 정기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기 모임에서는 학술부 동문 회장단이 새 얼굴로 교체를 했습니다.

1999년도 학술편집부 동문 회장단

회 장 89 진해동
부회장 91 차문진
총 무 94 유화정



2000년도 학술편집부 동문 회장단

회 장 91 김일환
부회장 91 박윤미
총 무 94 손길영

그 동안 학술부 동문회를 이끌어 주셨던 1999년 회장단 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 재학생들에게 쏟아주신 관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번에 2000년 동문 회장단 여러분들 축하드리구요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희 재학생들 역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95 이상욱

● 학술부 특별기획 - 도서관 설문 조사

도서관 이용현황 및 만족도 조사

- 1.1)학과 2) 학년3) 주·야
- 2. 도서관이 무엇을 하는 곳으로 인식하십니까?① 도서를 보관하는 곳이다 ② 책이나 비도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③ 종합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곳이다 ④ 자유롭게 와서 공부하는 곳이다⑤ 과제를 준비하는 곳이다

I. 3층 및 4층(연속간행물실) 이용

- 1. 도서관 이용회수를 선택하십시오. ①주 4회이상 ②주 1회이상 ③월 1회이상 ④학기 1회이상 ⑤ 이용한 적이 없다
- 2.이용자료:주로 이용하는 자료를 선택하십시오.①단행본a.소설b.교과교재
② 연속간행물(잡지류) ③ 논문④ 참고도서(사전류)
- 3. 이용목적 : 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을 선택해 주십시오
① 도서열람(대출·반납)② 레포트③보고서 작성③ 독서④ 스캐너 등의 특수기기이용⑤기타
- 4.자료열람실(3층 및 4층의 연속간행물실) 개·폐관시간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하다 ⑤ 매우 불만족하다
- 5. 사용자들의 도서관 이용태도에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① 휴대폰·잡담 등으로 시끄러울때② 서고(책꽂이)나 책걸상 또는 화장실을 함부로 사용할 때③ 이용하지도 않으면서 자리를 맡아놓은 것을 볼 때 ④ 검색 PC를 장시간 독점할때⑤기타 : _____
- 6. 도서관 규정에 대해서 잘 알고있나요? ① 최대 대출권수 ② 대출기간③ 연체료 ④ 대출한 도서분실 :⑤ 도서관 개관시간 : _____⑥ 도서관 폐관시간 : _____
- 7. 도서관 시설
1) 도서관의 시설 (책상 등...)
①적당하다②부족하다③필요한시설: _____
3) 자료① 도서관 자료는 충분하다.② 도서관 자료는 부족하다. ③ 도서관 자료는 특정분야에만 편중되어 있다.④ 시급히 구입해야하는 분야의 도서 : _____4)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도서관시설 _____
- 8.우리대학도서관은 어떻습니까? 말로 표현해 볼까요①시설과환경이_____②서비스의질은_____

§ 설문분석결과 §

·설문에 응해준 사람들의 학과와 인원 / 학년 / 주·야
한국어문학부11명/역사문화학부10명/영어영문학부16명/사회과학부51명/경영학부25명/의생활학부14명/미디어디자인부11명/무용학과5명/정보전산25명/산업시스템부19명/무표기13명/합계200명

1학 년	2학 년	3학 년	4학 년	무표 기	합계	주간	야간	무표기	합계
37	51	80	30	2	200	148	52	0	200

2. ▶분석결과

- ① 도서를 보관하는 곳이다 : 13명이 응답하여 6%의 결과 나옴.
 - ② 책이나 비도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 83명이 응답하여 41%의 결과 나옴. ③ 종합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곳이다 : 71명이 응답하여 35%의 결과 나옴. ④ 자유롭게 와서 공부하는 곳이다 : 26명이 응답하여 13%의 결과 나옴.
 - ⑤ 과제를 준비하는 곳이다 : 7명이 응답하여 4%의 결과 나옴.
- 이용자들은 도서관을 책이나 비도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종합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이들에게 서비스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I. 3층 및 4층(연속간행물실) 이용

1. ▶분석결과

①주 4회 이상 : 63명이 응답하여 31%의 결과 나옴.②주 1회 이상 : 74명이 응답하여 36%의 결과 나옴.③월 1회 이상 : 50명이 응답하여 24%의 결과 나옴.④학기 1회 이상 : 13명이 응답하여 6%의 결과 나옴. ⑤ 이용한 적이 없다 : 5명이 응답하여 2%의 결과 나옴.

3층은 이용하지만 4층은 이용해 보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2. 분석결과

① 단행본 : 소설과 교과교재이용의 응답을 포함하여 169명으로 73%의 결과 나옴. 단행본의 이용중 소설의 이용에 44명이 응답하여 26%의 결과가 나왔고, 교과교재의 이용에 125명이 응답하여 74%의 결과가 나왔다. ② 연속간행물(잡지류) : 34명이 응답하여 15%의 결과 나옴.③ 논문 : 7명이 응답하여 3%의 결과 나옴. ④ 참고도서(사전류) : 14명이 응답하여 6%의 결과 나옴.

⑤ 기타 : 6명이 응답하여 3%의 결과 나옴.

기타 응답으로는 '취미·관심분야의 서적을 이용한다'가 있었다.

3. 분석결과

① 도서열람(대출·반납) : 98명이 응답하여 43%의 결과 나옴.②레포트 및 보고서 작성 : 96명이 응답하여 42%의 결과 나옴.③ 독서 : 22명이 응답하여 10%의 결과 나옴. ④ 스캐너 등의 특수 기기 이용 : 3명이 응답하여 1%의 결과 나옴. ⑤ 기타 : 6명이 응답하여 3%의 결과 나옴. 기타응답으로는 개인 학습, 신문을 읽기 위해 등이 있다.

4. 분석결과

①매우 만족한다 : 4명으로 2%가 나옴.

②만족한다 : 36명으로 18%가 나옴.

③보통이다 : 95명으로 47.5%가 나옴.

④불만족이다 : 57명으로 28.5%가 나옴.

⑤매우 불만족이다 가 7명으로 3.5%가 나옴.

그리고 무응답 1명(0.5%)이 있었다.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대부분이지만 만족하는 학생(20%)보다는 불만족인 학생(32%)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분석결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태도에 불쾌감을 언제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다.

①휴대폰·잡담 등으로 시끄러울 때 : 111명으로 40.5 %가 나옴.②서고(책꽂이)나 책·결상 또는 화장실을 함부로 사용할 때 : 17명으로 6.2%가 나옴.③이용하지도 않으면서 자리를 맡아놓은 것을 볼 때 : 109명으로 39.8 %가 나옴.

④검색 PC를 장기간 독점할 때 : 21명으로 7.7 %가 나옴. ⑤기타 : 16명으로 5.8 %가 나옴. 기타의견으로는 이용태도는 나쁘지 않으나 자리가 없다, 연애장소로 이용하는 학생, 잠자는 사람, 도서관 직원이 학생들보다 더 시끄럽다, 책을 혼자만 사용하려고 숨겨놓을 때 즉 대출되지 않은 도서가 제자리에 없을 때, 도난 사고 등이 있었다.

6.①최대 대출권수 ▶분석결과

현재 우리학교 최대 대출권수는 3권이다. 이것을 알고 있는 학생이 120명으로 60%이다. 그 외 2·3·4권, 모른다는 학생도 80명으로 40%나 된다.

②대출기간

▶분석결과

도서 대출기간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59.5%인 119명의 학생들이 10일 정확히 알고 있었고, 40.5%인 81명의 학생들이 5·7·15일, 모른다고 답하였다.

③연체료

▶분석결과

도서를 대출해서 연체했을 경우 하루 연체료가 얼마인지 아는가에 대해 질문이었는데 45%인 90명의 학생만이 30원이라고 제대로 알고 있었고, 과반수 넘는 110명의 학생이 10·20·40·50·100원 등이라고 답하였다. 심지어 1000원이라고 한 학생까지도 있었다.

④대출한 도서분실

▶분석결과: 15%인 30명만이 제대로 알고 있을 뿐 나머지 85%인 170명의 학생들이 잘 몰랐다. 도서관 출입정지, 6개월 대출정지 등 다양한 답이 나왔다.

⑤도서관 개관시간

▶분석결과

도서관 개관시간이 9시 30분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이 16.5%에 해당하는 33명뿐이었다.

그 외 9시라고 답한 학생이 44%나 되는 63명이었고, 6시·10시, 모른다는 학생이 39.5 %에 해당하는 104명이나 되었다.

⑥도서관 폐관시간

▶결과분석

우리 학교 도서관 폐관시간은 9시이다. 9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은 49%에 해당하는 98명이고, 51%에 해당하는 102명의 학생들이 8시, 9시 30분, 10시, 11시, 모른다 등 다양하게 답하였다.

7. 도서관 시설

(1)도서관의 시설 (책상 등...)

▶분석결과

학생들이 도서관 시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는데 15%인 30명의 학생들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생인 85% 즉, 170명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도서관에 필요한 시설로는 많은 학생들이 자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책·결상, 특히 허리가 아프다고 신형 책상과 의자라고 답한 학생들도 있었다. 그 외 빠른 검색 PC, 열람실, 도서 열람할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였다.

또 일반 시·도립도서관 수준 같다면 학교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신경 써달라는 학생도 있었다.

도서관 시설은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이 오래된 도서밖에 없다며 다양한 분야의 책과 자격증 서적 등 신간서적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3)자료

▶ 분석결과

① 도서관자료에 만족한 이용자는 전체 200명 중 8%에 해당하는 16명이었다.

② 도서관 이용자의 대부분은 자료가 부족(80.5%)하며 특정분야의 도서에 편중.

③ 도서관 자료가 특정분야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의견은 18명으로 9%.

④ 기타 의견으로 대체적으로 거의 부족하나 논문, 매학기별 강의교재, 레포트 필요교재, 법학0·소설분야가 부족하며, 최신 학과별 전문서적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부분 자신의 전공과 관련한 서적의 부족에 대한 의견이 많아 정보통신 분야의 최신자료나 Fashion·의상·색채·예술 분야의 도서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4) 있어야한다고 생각되는 도서관 시설

· 스캐너·캐릿이 필요하다·컴퓨터와 컴퓨터의 속도 향상·전공서적·최근도서가 부족하다

· 책상·의자가 부족하다·식당 폐점 시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곳, 소파 등이 필요하다·책임있는 도우미가 필요하다·공부할 수 있는 공간, 개개 열람실

8. ① 시설과 환경이 _____ ② 서비스의 질은 _____ ① 좋지않다. 101명 50.5% ② 좋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34명 17% 그저 그렇다. 13명 6.5%그저 그렇다. 20명 10%보통이다. 21명 10.5% 보통이다. 61명 30.5% 좋은 편이다. 3명 1.5% 괜찮다. 좋은 편이다. 22명11% 무응답 62명31% 무응답. 63명 31.5%

마무리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만큼 현재 우리 학교 도서관이 이용자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우리 학교는 독립적인 도서관 건물이 없는 상황으로 공간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젠 책을 수용할 공간도 사람을 수용할 공간도 모두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더 필요하다. 도서관에서 아무리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도 이용자가 그것을 몰라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문정인의 한 사람으로서 도서관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늘 해왔다는 것 앞으로도 해나갈 것을 확신한다.

● 연락하고 삼시다~~!!!!!!

이번 학술부에서는 학우들의 모든 연락처를 모아봤습니다. 한번쯤은 평소에 연락 안하고 지내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1학년 주소록

유효주 011-9027-9149	이보미 011-9885-2961	김희운 011-9638-5718	김태균 016-547-2622
이민경 017-780-0828	이명선 011-365-9496	한주화 019-262-7618	박민경 011-9801-8804
오은옥 011-9955-9808	이진희 011-9910-8826	강지현 011-9958-6378	봉재운 016-7008-9229
강민희 017-210-5939	윤정아 016-762-2943	최은숙 011-328-4855	부신숙 016-283-4383
강유라 016-757-9950	강민지 011-9568-0671	박수정 016-219-6143	오혜영 018-284-8645
구영미 016-254-0717	김미진 011-292-5555	변유미 017-768-3151	유수옥 011-9911-1272
김남규 011-9729-8583	김미희 019-350-1513	손정아 019-388-4504	윤성혜 02-2202-3641
김동선 018-263-0294	김보연 011-9039-8200	신우철 016-704-4008	윤은정 019-493-4780
김미랑 011-9023-6610	김희영 011-9916-1406	신현상 011-9633-9400	이보영 011-9065-4140
김수연 011-9750-8904	박원규 018-688-1526	안영주 011-9998-8332	이은미 016-392-7023
김순희 011-9926-9037	박종복 011-9875-2188	엄수용 018-208-4435	이은미 011-9038-8090
김정인 011-9746-5422	박지혜 011-9872-6625	오미정 019-465-3668	이정은 011-9754-8074
김형숙 011-9015-1769	박해진 019-367-6565	유미진 011-9651-8426	임희주 018-293-8472
김혜영 011-9015-1769	박현정 016-753-2155	윤은미 018-245-6689	장석화 016-790-6362
김희은 019-365-6068	백준열 011-9015-1769	이선원 018-276-4165	장애량 016-387-4789
라지인 011-9766-4397	서철희 011-9860-4160	이성식 019-284-7314	장유리 011-9912-1016
박여진 016-745-5108	성상아 019-254-4754	이효섭 019-205-6770	장진영 011-9789-5890
박정현 011-9953-4976	신지선 011-9059-0908	임정희 011-9951-0099	정해선 018-297-7055
박희영 016-745-0723	심현미 011-9059-0908	정병두 011-9096-0516	정화정 031-979-7080
신지연 011-9871-2325	안시내 011-9934-3887	조현정 017-069-3812	최중선 011-740-9449
십정아 011-9895-6934	양선미 018-282-1214	진옥자 019-366-9647	한지원 019-389-9784
양혜진 017-655-6552	오은화 011-9631-3815	천성미 011-9769-9963	함경진 017-257-5730
엄수열 017-393-2876	오진우 011-9946-9821	최영순 019-246-7832	허 정 017-257-5730
이보현 018-336-3506	임시향 011-9946-9821	최윤정 011-9934-1883	홍상식 011-9983-0395
이승희 011-9637-7026	임재현 011-541-6246	곽동화 018-203-4733	권혜진 011-9013-7990
이은경 011-9893-2319	임정규 018-266-9518	구본경 016-731-6541	
이정연 011-9080-3507	임현주 018-340-7292	기인영 016-716-2417	
이정주 016-210-7346	전민아 011-888-0439	기지연 011-9067-3140	
이지연 016-222-9758	정선희 011-9754-2303	김수진 016-710-8622	
전영민 016-222-0342	최광준 011-9754-2303	김아영 019-673-3105	
정나리 019-240-6210	한경화 017-331-4811	김영민 016-391-8086	
정동철 011-9961-1662	한승희 011-9898-3925	김은옥 016-9223-7384	
정미라 011-9840-9530	홍기원 017-270-0915	김주경 018-301-5460	
정해은 011-9795-2573	황채정 011-9870-4428	김주희 016-775-3965	
조용인 011-9048-6100	홍하나 011-9027-3663	김지영 019-630-3191	
조혜연 018-245-1779	이미영 011-9898-3925	김진영 019-201-8997	
주민정 011-9092-9023	2학년 주소록	김희정 016-710-8826	
최미희 011-9018-5023	가성호 011-9631-1788	김희정 016-710-8826	
한상미 011-9942-3698	김민경 018-265-5567	류국희 016-593-5058	
한현진 018-342-5768	김보연 018-464-2014	박계영 018-227-1789	
	김은주 011-9907-7876	박선영 011-9931-1203	
	김용동 011-9986-6506	박희경 018-387-8853	
		백승연 017-258-0051	
		심하나 011-9061-4629	

3학년 주소록

권정은 019-399-2584	이재희 019-211-21040	김지영 011-9043-4354
권현수 011-215-5543	손혜정 019-234-9738	김효진 011-203-1500
김가림 011-9764-2889	이혜련 019-209-1676	노은미 019-269-6950
김미선 011-9888-4820	서경미 016-237-3644	노혜영 011-207-1244
김나라 019-546-4221	이미선 017-299-8408	민기연 011-327-7545
김성준 018-407-7240	박은영 011-9004-5118	박윤경 017-716-0183
김용옥 016-495-6842	박수정 011-9877-9825	박정선 017-364-0866
김은희 011-893-1350	박주화 019-262-9825	박지연 016-381-4118
김현정 016-414-8687	박승희 016-330-7679	서영순 019-345-2184
남재락 011-9311-4694	이경남 011-9062-7131	성지혜 016-246-2579
문주원 019-449-3195	윤희정 011-9631-7042	신보경 016-721-6990
민지현 016-724-0118	양윤재 017-705-2760	신혜원 017-704-4806
박상옥 017-283-3983	임재열 017-722-0994	양래금 016-328-3377
박혜진 017-766-3680	권래남 016-651-0517	오차남 019-311-5794
서수연 011-9711-8889	소경옥 011-9913-1259	유수현 011-9960-7160
설용화 019-388-4504	최미영 019-378-7416	윤선영 019-805-5386
신은실 019-296-0324	김일례 011-9884-6180	이상옥 017-227-9939
신지혜 016-760-0917	조명선 011-9765-1841	이상필 019-490-2408
유수현 011-9740-7166	정재연 011-9634-9373	이성훈 019-435-8162
이선형 016-256-3207	박종국 016-203-1909	이원철 016-747-3895
이선희 011-9875-2529	이경탁 017-249-5611	이유호 011-9758-0465
이수연 019-269-7201	전정미 016-752-7797	이화진 017-407-1891
이은경 011-9803-1805	전은미 016-707-4393	임진숙 016-354-6182
이혜진 016-762-2657	김진영 016-745-5840	조옥성 011-286-2468
임예성 016-713-4528	김춘덕 016-715-0616	조은정 011-9069-1406
장기영 017-358-4714	4학년 주소록	조진선 016-244-7535
정미숙 019-299-8395	강유미 017-617-1850	진근숙 011-9037-2687
정선아 011-9631-7042	구훈희 017-282-8934	차수진 016-387-6212
하신혜 019-313-9649	김경민 017-357-5984	하수연 019-264-3810
주혜정 017-343-6715	김선영 019-320-6124	현소영 011-9890-9614
한미진 011-9818-5026	김소희 011-289-8746	홍순도 016-716-7523
김수현 018-209-9401	김수민 011-264-4517	황혜선 011-327-7111
이영애 016-262-4535	김윤진 011-9993-2902	
	김은영 011-9806-2958	

'95 문주원, '98 정미숙, '99 정혜선

◆ 두 마리의 당나귀

어떤 나그네가 두 마리의 당나귀 등에 짐을 싣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고갯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당나귀는 짐이 무거워서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당나귀에게, "여보게, 나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제 걸을 수가 없네. 정말 미안하지만 내 짐을 조금만 걸라서 져다 주지 않겠나? 부탁하네."

하고 사정했습니다. 그러자 그 당나귀는, "나도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죽을 지경이야. 네 짐을 져다 줄 수는 도저히 없어."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짐을 조금만 덜어서 져다 달라고 부탁하던 당나귀는 가엾게도 죽어 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야단났구나. 이런데서 당나귀가 죽었으니 이 짐을 어떡하지."

하고 나그네는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겨 있더니,

"아, 그렇지. 할 수 없다. 안됐지만 다른 당나귀에다 실어야겠군."

하고 말했습니다.

나그네는 죽은 당나귀의 짐을 다른 당나귀의 등에다 실었습니다.

자, 큰일났습니다.

짐을 조금만 덜어서 져 달라는 것을 거절한 탓으로, 악운 당나귀는 짐을 다 떠맡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 아주 짧은 우화이지만..... 이 짧은 글 속에서도 많은 것을 얻을 있지 않으세요?



playing alone _ 33

Snowcat's playing alone 자학하는 방법

① 거울을 본다



② 먹을것을 앞에 두고 굶는다



③ 크레파스로 몸을 색칠한다



Copyright © SNOWCAT HOME all rights reserved.

21Century

문헌정보 Lib.&Info. 약속부

학술원집부

부 장	'98 정 미숙
차 장	'95 문 주원
총 무	'99 정 해선
부 원	'95 이 상욱 '96 노 은미
	'96 오 효선 '96 이 선형
	'96 임 주열 '97 우 정희